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 벽) 09:30(중고등부)		
		10:30 (교 중) 10:30 (초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째 토요일 오후 4시			
<< 매 미사 전후 고해성사 >>				

● 모임

모임	일시	장소
· 만나회 월례회의	8/21(월) 오전10시	제 6교실
· M-E 야외쉐어링	8/26~27일 1박2일	연풍성지
· 성체분배자 성시간	8/28(월) 19시 45분	성체조배실

● 알림

- 미사 참례시 앞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미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입니다. 우리는 식탁 주위에 모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의 축복을 바랍니다.
- 구역장님들은 9월 「길잡이」를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주세요.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안내 *

일시 : 8월 8일(화) ~ 11월 16일(목) 저녁7시 미사 후
장소 : 쉼터방
준비물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책
연락처 : 이영민 수산나 (010-7493-1312)

● 청년 성서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복음
- 문 의 : 신연미 가브리엘라 010-7599-3239
김용만 아우레오 010-5564-4901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지역아동센터 학생 모집 (전액 무료) *

- ♣ 장 소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교육관
- ♣ 일 시 : 월~금요일 오후 13:30~19:00 (식사제공)
- ♣ 학생자격 :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자녀, 주임신부님 추천을 받은 학생
- ♣ 문 의 : 070-8153-0131 / 02-6738-2200
- ♣ 학생들의 저녁식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봉사 시간 : 주 1회 오후시간)
- ※ 다음주(8/27) 지역아동센터와 국제미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 *

교무금은 본당 사무실과 시중 우리은행 수납창구 및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텔레뱅킹으로 납부가능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은행으로 직접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정자 이름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 예 금 주 :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꿀벌유치원 졸업생 모임

- 일 시 : 9/2(토) 08:30~14:00
- 장 소 : 꿀벌유치원
- 신청방법 : 8/28(월)까지 유치원으로 전화신청(857-8545)
- 주 제 : “우리는 한 가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위령봉사회(연령회) 임원명단 안내

- 장례시 기도과 봉사로 복음을 실천하는 위령봉사회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회 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010-5218-2789
부회장	김이용 스테파노	010-5399-1389
부회장	김연순 요안나	010-3110-4236
총 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위령봉사회(연령회) 회원 모집 *

- 돌아가신 영혼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고 가족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봉사를 함께하실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 주보 7면

- 국제미사 / 한국어 교실 안내

●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 하반기(9월부터) 구역미사 안내

- 그동안 구역에서 연 2회 이루어지던 구역미사는 하반기부터 연간 1회는 구역에서, 1회는 본당(지하강당)에서 거행 됩니다. 성당에서 거행되는 미사에는 구역의 모든 교우 가족이 함께하며 미사 후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겠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정	구 역 미 사		형제회
	구 역	성당(지하강당)	
9/6	임원모임(반장,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9/13	18구역	1구역	10구역
9/20	24구역	12구역	2구역

● 청소 (다음주 : 8/27) / 국수잔치 (9/3)

청 소	9구역(8/27)	국수잔치	4구역 (9/3)
-----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특전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8/20	최석준	김인기	최창열 황태영 김봉기	김광수	최승일
8/27	김영배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박홍식	오광운	김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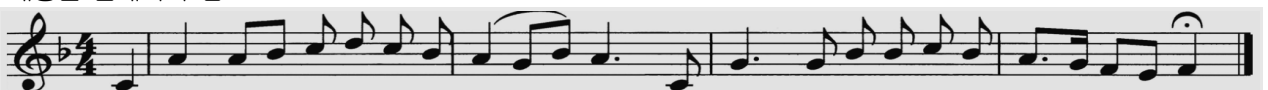
● 교종미사 전례봉사회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8/20	정은주	이상훈 김현철 신종구 심재순	강철등 맹수진
8/27	손진희	임공섭 하재민 도현문 최상림	김인기 정정숙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7,678,000원
- 주일헌금 6,715,700원
- 성모승천 대축일(8/15) 헌금 4,435,850원
- 감사헌금 박성재10만원 김○○10만원 장연순10만원
김형준 1만원 마점순10만원 이○○10만원

회답송



하느님 - 모든 민족들 - 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국 제 미 사 *

♣ 영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6시 / 교육관(소성전)
- 대 상 : 영어 미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중 국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1시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대 상 : 중국어 미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장 소 : 구로구 우마길 23-12 (하이츠빌라 201호)

* 한 국 어 교 실 *

- ♣ 일 시 : - 화, 목요일 저녁 7시 (19:00)
- 토, 일요일 오후 1시 (13:00)

- ♣ 장 소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구로구 우마길 23-12 (하이츠빌라 201호)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어를 가르칠 봉사자를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59.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 앞에서 인격체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을 추상적이 인간이 아니라, 성적인 정체성을 지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이나 급진적 페미니즘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지배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향하고 또 서로가 필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혹은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역할을 맡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모상을 완전하게 실현합니다.

60. 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사회 교리에 따르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사회 안에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참여를 배제시키는 차별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국가와 사회의 과제는 장애인의 참여까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궁극적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 능력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의 품위는 업적이나 효율을 통해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1.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물은 서로 규합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형성하거나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이에 비해 인간에게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공동체이자 관계이신 하느님은 인간이 관계를 맺는 본질을 지니도록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책임을 맡고 또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다양한 관계들을 지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 파묻혀 있으며 함께 작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가족, 단체, 국가, 교회 등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일치의 원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에 관여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62. 왜 인간은 종종 공동체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나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 할지라도 종종 반사회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기심, 탐욕과 망상은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목적으로 이끌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놔둡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바라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결합체입니다. 공동의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는 닫혀 있는 **공동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공동선의 모습은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해 함께 모은 성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내놓았을 때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